

## KIT-아주대, 바이오 학·연 협력

바이오산업의 육성을 위한 학술·연구 협력이 강화되고 있다.

안전성평가연구소(KIT)는 아주대학교와 11월17일 수원 라마다 프라자 호텔에서 바이오산업 분야 공동 연구와 전문인력 양성 등을 위한 학·연 협력 MOU(양해각서)를 체결했다.



화학, 생명, 의학 등 전통적으로 이공계 명문인 아주대학교와 국내 바이오산업 분야 최대 인프라인 연구기관(안전성평가연구소)이 공동 협력함으로써 바이오산업과 학문의 연계 발전을 극대화하기 위한 것이 목적이다.

앞으로 제약 등 생명공학 산업계 발전을 위한 학·연 공동 연구개발 과제 도출 및 공동 수행에 적극 협력하게 된다.

또 전문인력 양성과 학술정보 교류, 교육활동 등도 활발히 추진할 예정이다.

KIT 권명상 소장은 “정부 출연 연구소와 대학교의 상생 협력은 다가오는 바이오경제 시대의 핵심 경쟁 모델로 각광받고 있다”며 “특히, 아주대는 약학대학 유치 계획 등 남다른 비전과 역량을 가지고 있어 시너지 효과가 적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고우리 기자>

<화학저널 2009/11/19>